

사회적 기술 부족과 충동성으로 인해 또래갈등이 심한 분교아동의 상담사례

이 인 선

(진주교육대학교)

I. 서론

아동은 성장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대상이 확대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형태도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특히 아동기에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또래관계를 통해 아동은 자아개념의 형성과 사회적 만족 뿐 아니라 아동기 이후의 사회적 적응 및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많은 기술, 태도, 경험 등을 얻게 된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분교 아동은 또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자라온 환경적 특성 때문에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과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또래 집단에 쉽게 수용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서지역에서 성장한 분교아동 L군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례연구이다. 심리검사 결과를 통한 양적인 분석과 함께 참여관찰을 통한 관찰일기 쓰기, 주위의 주요 인물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L군이 겪고 있는 문제를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주목적인 상담의 효과 검증과 함께 상담과정을 문화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L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분교아동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과 그들이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 위축과 기술 부족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그 부가적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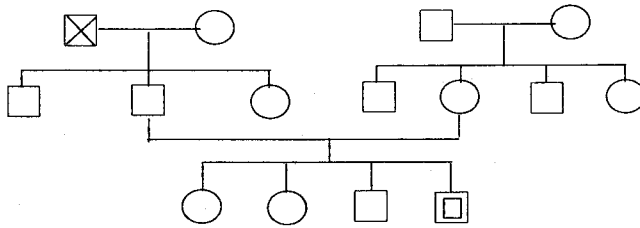
II. 상담 계획

1. 내담자 정보

가. 개인력

L군은 경상남도 소재 H섬의 H분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다.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 대부분을 섬에서 지냈으며, 4학년 때 시내의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전학 후 새 학교에 잘 적응하는 형과 달리 L군은 단체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과의 다툼이 잦았고, 사소한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교를 뛰쳐나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으며, 아파트에서도 자전거 도난 사건에 연루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직업상 퇴근이 일정치 않고, 늘 아이를 곁에서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L군의 부모님은 6개월 만에 다시 L군을 섬으로 전학시켰다.

나. 가족관계



[그림 16] L군의 가족관계

가족과 떨어져 섬에서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부모와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며 전화 연락도 자주 하지 않는 편이다. 아버지는 수산물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우유부단한 편이며 보증문제 때문에 L군의 어머니와는 법적 이혼상태이다. L군은 아버지를 ‘만만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은 듯 하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수산물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못미더워 하여 가정의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는 편이다. 시댁 식구, 친형제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잦고 마음을 터놓고 잘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H섬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다. L군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딸과 달리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다.

L군이 가장 싫어하는 가족 구성원은 연년생 형이다. 주위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과격하여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L군의 부모는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똑똑한 아이'로 표현하고 있었다. L군과 만나기만 하면 싸움을 한다.

다. 행동 관찰

L군이 4학년 때 전학을 가서 6개월간 다녔던 W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와 연구자가 L군을 대상으로 쓴 행동관찰 일기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1) 사회적 기술 부족과 또래관계 위축

L군은 학교에서 지켜야 될 시간 규칙이나 공동체생활에 있어 지켜야 할 약속에 관한 관념이 부족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오랫동안 고집을 부리며 말을 하지 않거나 학교를 뛰쳐나가는 등 매우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L군이 쉬는 시간이 지나고 다음 수업시간이 끝나기 10분전까지 수업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L군이 다른 아이 1명과 함께 강당 커튼 뒤에서 팽이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2명의 아이는 저에게 야단을 맞고 팽이도 뺏겼죠. 그랬더니 L군이 화를 내며 가방을 싸서 학교를 뛰쳐나가는 거였습니다. 학교 밖에까지 쫓아가서 겨우 데리고 왔죠.”

- 2004년 8월 16일 이전 담임과의 면담 중에서-

L군은 본교에서 본교와 분교아동이 함께하는 종합학습일에 참여하기를 싫어하였다. 종합학습일이 되면 배가 아프다거나 준비물이 없어서 가기 싫다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누장을 부렸다. 다른 분교생들과 달리 본교 또래들과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며, 수업 태도 또한 비협조적이고 무기력하였다.

S초등학교에 소속된 4개 분교장의 아동이 1달에 1번 본교에 모여서 본교 아동과 함께 공부를 하는 종합학습일이 되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여러 가지 생물 관찰하기와 전통문양 꾸미기였다. 모두 L군이 평소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솜씨를 뽐낼 수 있는 영역이었다. 그러나 L군은 모듬끼리 하는 생물 관찰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책상 밑만 보고 기록도 하지 않았으며, 미술시간에는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힘들게 한손으로 작품을 가리며 만들고 있었다.

- 2004년 7월 14일 관찰일기-

2) 충동성

W초등학교에서 L군은 또래 아이들의 관심과 장난에 대해 너무 자기중심적인 반응을 보여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했다. L군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소한 장난은 싸움으로까지 연결되었고, L군의 과민반응은 보통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울거나 토라

지는 정도를 넘어서 주위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물건을 갈기갈기 찢는 정도로 격렬했다.

“아침에 일기 검사를 하고 각자의 일기를 아이들 책상 위에 놓아두었죠. 그런데 L군이 다른 여학생의 일기장을 몰래 훑쳐보고 일기장에 낙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여학생들이 L군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죠. 따지고 드는 여학생들에게 화가 난 L군은 일기장 주인인 여학생을 때려서 울리고, 교실 책상을 던지고 자기가 갖고 있던 읽기 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교실 바닥에 흩어 두었던군요. 저도 L군이 중요한 교과서를 찢은 것에 화가 나서 처음에는 테이프를 다시 붙이라고 했었는데, 너무 심하게 찢어져서 다시 붙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 2004년 8월 16일 이전 담임과의 면담 중에서-

L군은 H분교에서 교사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하급생을 대상으로 위험한 장난을 종종 하였다. L군과 이야기 해보면 자신의 위험한 행동에 따른 결과나 책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층 화장실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이어 7살 H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알아보니 L군이 1학년과 7살 남학생을 권투놀이를 한다고 싸움을 붙인 것이었다. 평소 L군이 동생들을 교묘히 이간질시키고 다투게 만드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던 D교사는 전교생 9명을 D교사의 교실에 모아두고 훈화를 하며 L군을 따끔하게 혼을 내셨다. 야단을 맞고 교실에 들어온 L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2시간 동안 연구자가 그 어떤 말을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고,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당연히 전혀 수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 2004년 7월 10일 관찰일기-

3) 가족간 무관심

L군의 부모는 L군에게 참 무관심하다. 형제들 상호간에도 이상할 만큼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L군의 가족에게는 끈끈한 가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방학 이후 L군의 어머니와 통화가 되지 않아서 L군에게 요즘 어머니의 근황에 대해 물어보았다. L군의 대답으로는 개학이후 매일 전화를 하고 있지만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형은 지금 체육시간에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았더니, L군은 알고 싶지도, 궁금하지도, 걱정되지도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평소 형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라니 놀라웠다. L군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과 달리 부모와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서로를 위하거나 걱정해주지 않으며, 가족의 유대감이 아주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 2004년 9월 10일 관찰일기-

4) 주의력 결핍

L군은 매우 산만하였다. 집중 시간이 짧고, 고학년이지만 스스로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며 잘하고자 하는 의욕 또한 부족하였다. L군을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L군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봐주고 계속 칭찬해주어야만 했다. W초등학교에서도 L군은 수업 중에 연필을 꺾고, 쓰레기를 비우고, 다른 아이들의 일에 간섭하느라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으며, 학습에 대한 의욕이 부족해서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여 교사가 옆에 서 있어야 학습과제를 해냈다고 한다.

수학 시간이었다. L군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원리를 설명하고 몇 개의 연습문제를 풀어 L군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수학 익힘책 한바닥을 풀어서 검사를 맡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3학년 J의 수학을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L군이 어색한 잔기침을 시작했다. 밖에 나가서 물을 먹고 와야 되겠다는 것이다. 물을 마시고 난 뒤 들어온 L군은 채 1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다.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이제는 지우개를 만지작거리더니 곁에 쌓인 비닐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연필을 꺾고...등등 과제를 내어준 지 30분이 지났지만 L군은 한 문제도 풀지 않고 있었다. 몇 번의 주의가 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나는 늘 그랬듯이 L군이 문제를 푸는 것을 하나하나 지켜봐 주었고, L군은 10분 만에 그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었다.

- 2004년 9월 6일 관찰일기-

2. 심리검사 결과

가. 지적영역

한국 웨슬러 아동 지능검사(K-WISC-III)를 실시한 결과 L군의 전체 지능지수는 82(11.5%)로 평균이하 범위(Low average range)에 해당되었다. 언어성 지능(84), 동작성 지능(85)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성 지능에서 주의집중(67, 5.5%)과 처리속도(76, 5.5%)가 현저하게 낮고, 상대적으로 언어이해(91, 27.4%)와 지각조직(95, 36.9%)은 우수한 편이었다.

상대적인 지적 하위 기관의 측면에서 볼 때, L군은 일정시간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과 계열화 하는 능력이 낮으며, 사물에 대한 판단력, 상식적 이해력이 다소 높다는 것은 장점으로 지적되었다.

나. 성격 및 정서적 영역

L군을 대상으로 한국아동인성검사 개정판 자기보고형(KPRC-CRF),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문장완성검사(SCT), 아동우울검사(CDI) 등을 실시하였고, 실제로 L군을 양육하고 있는 외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아동인성검사(KPRC)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을 실시하였다.

한국아동인성검사 자기보고형에서 지적된 사회성(66T)척도의 상승은 K-YSR의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으며 말을 하지 않음'과 일치하였다. 이런 사회적 위축과 관련하여 L군이 문장완성 검사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외딴곳에 살게 되면 파충류와 살고 싶다', '내가 동물로 변한다면 기린이 되고 싶다'라고 함으로써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볼 때 정상적인 아동이 사람이나 대인관계에 관심을 나타내는데 반해 L군은 사람보다는 동물과 상호작용하기를 좋아하며, 수줍음이 많고 남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기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아 대인관계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관계(65T)척도의 상승은 L군이 가족 내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과 부모의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L군이 현재 부모와 거의 만나지 못하며 외조부에게서 양육되고 있는 상황이 프로파일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외에도 비행(64T)척도와 관련하여 아동 우울검사(CDI)의 '나는 절대로 다른 아이들처럼 착할 수가 없다'는 보고는 L군의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 경향과 집이나 학교에서의 반항을 스스로 지각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3. 핵심적 문제도출

첫째, 사회적 기술 부족 및 심리적 위축: 오랫동안 또래간 상호작용이 부족한 분교에서 생활하여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전학 간 학교에서의 적응 실패 경험으로 인해 또래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안해하고 수줍어하며, 남에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둘째, 충동성: 가정에서 말 수가 부족하고 어떤 일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고집을 부리며, 학교에서는 하급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위험한 행동에 따른 결과나 책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이며 위험한 장난을 하였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든가, 몇 시간씩 고집을 부리는 등의 반항적 행동을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지 않았다. 또래 갈등이 있을 때 주위의 물건을 던지거나 학교를 뛰쳐나가는 등 충동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였다.

셋째, 가족관계에 대한 지각: 부모와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부모의 무관심, 연년생 형에 비해 매사 가족 내에서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었으며, 마음속에 형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어 형과 심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주의력 결핍: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작은 소리나 소음에도 쉽게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과제 수행이 느리고 주어진 시간 내에 완수해내지 못하였다. 누적된 학습부진으로 인해 학습동기가 낮고 언어능력과 운동영역에서 현저하게 자신감이 부족하였다.

4. 상담목표

- 가.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켜서 또래관계에 있어 불안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으로 또래 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 나.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에 대한 비합리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분노를 다스려 사려 깊은 행동을 할 수 있다.
- 다. 가족에 대한 지각을 바꾸어 의존적인 생활에서 탈피하며, 형과의 감정 정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한다.
- 라. 자기만의 목표 설정을 통해 학습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며 자신감을 회복한다.

Ⅲ. 상담 과정

1. L군의 상담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구안

<표 1> L군의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표적 영역	회기	활동명	활동내용	기대 효과
관계 형성	1	마음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소개 ◇ 심리검사 결과를 통한 자기이해 ◇ 삶의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 자기 개방과 친밀감 형성하기 	친밀감을 형성하고 아동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상담의 방향을 설정함.
탐색	2	어머니와의 상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성장환경의 이해 ◇ 심리검사 결과 등 L군에 관한 정보 제공 ◇ 프로그램 안내 ◇ 가족치료의 필요성 교육 	성장환경을 이해하여 원인을 찾고 부모에게는 자녀이해에 도움을 주고 협조를 요청함.

자기 인식	3	나 바라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서 확인 ◇ 자신의 근사한 모습과 흉한 모습 그리기 (요술 거울) ◇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기 ◇ 자기가 변화하고 싶은 모습 설정하고, 노력할 점 알아보기 	<p>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탐색하고 미래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도출함.</p>
또래 관계	4	나의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화(KSD) 그리기 ◇ 학교생활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서의 걱정이나 공포, 분노에 대한 목록 작성하기 ◇ 목록 없애기 활동 후 느낌 나누기 	<p>학교생활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감을 제거함.</p>
또래 관계	5	친구가 된다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가 났을 때의 자신의 행동 이야기하기 ◇ '나-전달법'과 '나-전달법' 비교하고, 느낌 이야기하기 ◇ '나-전달법' 으로 친구들과의 스트레스 상황 대처하기 	<p>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할 때 필요한 '나-전달법'을 배워 친구 관계에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름.</p>
또래 관계	6	주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상황이 적힌 제시문 읽기 ◇ 적극적인 주장행동 시연하기 ◇ 활동을 하며 느낀점 나누기 	<p>적극적인 주장행동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함.</p>
충동성	7	분노감정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 근육이완훈련 실시 ◇ 분노감정이 일어날 때를 이야기하기 ◇ 분노를 다루는 '멈추기-생각하기-행동하기' 단계 학습하기 ◇ 여러 가지 상황에 단계를 적용하고 대안 생각하기 ◇ 분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인식하기 	<p>분노감정이 일어날 때 더 나은 대안을 찾고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킴.</p>
충동성	8	'미안하다'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진적 근육이완훈련 실시 ◇ 내가 누군가를 귀찮게 했거나 거친 행동으로 해를 입혔던 경우를 생각해 보기 ◇ 사과하기 전의 감정 이야기하기 ◇ 사과했을 때의 느낌 이야기하기 ◇ 여러 상황에 맞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구체적 단계를 학습하기 	<p>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사과할 수 있음.</p>
가족 관계	9	행복한 우리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동물화 완성하기 ◇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인 특성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표현하기 ◇ 그림을 그릴 때의 감정의 변화와 가족에 대 	<p>가족간의 정서적 관계와 심리적, 정서적 독립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족에 대한 비합리</p>

			해 새롭게 알게된 점 이야기하기 ◇ 즐거운 우리집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해보기	적 사고를 합리적으로 전환함.
주의력 결핍	10	책임감 기르기	◇ '나의 책임 카드' 만들기 ◇ 자신에게 가장 약한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기 ◇ 오랜 시간이 걸리는 책임성은 계획세우기, 인내하기, 일관성이 필요함을 알기 ◇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 알기	개인, 타인, 학교와 관련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알고, 실천의지 다짐.
가족 관계	11	어머니와의 상담 2	◇ L군에 관한 상담 경과 및 정보 제공 ◇ 상담 이후의 변화 ◇ 가족치료의 필요성 제기	L군에 관한 상담 경과와 가족 역동의 문제점을 제공하여 가족 모두 치료의 동반자가 되도록 함.
자아 존중감	12	미래의 나는	◇ 점진적 근육이완훈련 실시 ◇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자아상을 상상하여 그리기 ◇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자아상을 위해 내가 변화하거나 할 수 있는 일 이야기하기	자신의 미래상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짐.
상담 종결	13	마음여미기	◇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안 것과 새로운 결심과 각오에 대해서 자신에게 편지쓰기 ◇ 상담내용 정리 및 상담을 마치면서 느낀 점 이야기	상담을 마친 후의 변화를 인식하여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

2. 회기별 상담 축어록 요약 및 분석

가. 제 1회기: 마음 열기

첫 회기에는 본 상담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상담의 목표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심리검사 결과를 알려주어 자기이해를 돕고, 삶의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 자기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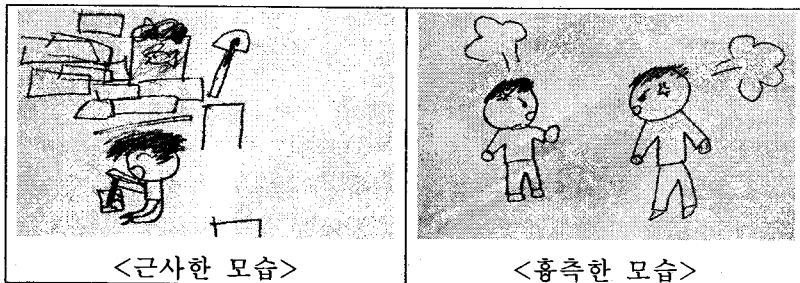
L군에게 상처로 남아 있을 W초등에서의 교우관계, 다시 섬으로 전입해 왔을 때 아이들과 섬 주민이 냉담하게 자신을 대했던 일, 현재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고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상황을 삶의 그래프를 통해 떠올리며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닌 남에 의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L군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일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 제 2회기: 어머니와의 상담 1

L군의 생육환경을 이해하고 L군을 상담하고자 하는 상담자의 의지를 오해 없이 전달하고자 어머니를 뵙자고 하였다. 이전 담임교사들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평범하지 않은 학부모였으므로 다소간의 긴장과 걱정을 안은 채 만남이 이루어졌다. 7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L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평탄하지 못한 삶 때문인지 강한 성격을 지녔고, 이것에 의한 독단적인 판단이 주위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 담임들과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고 신뢰감이 부족한 상태였다. L군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참 괜찮은 아이’라고 말하며 L군이 갖고 있는 문제를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제의에 대해서 흔쾌히 상담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낯선 담임에게 인정하기는 싫지만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 제 3회기: 나 바라보기

지난 시간 과제로 내어주었던 자기소개서를 확인하였다. 요술거울 기법을 통해 자기의 근사한 모습과 흉한 모습을 나타내 봄으로써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탐색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의 가장 흉한 모습은 분교 아동 C와 욱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가장 근사한 모습은 만들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만들기를 할 때 주위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멋진 모습이 되었다고 하였다. 가장 흉한 모습의 탐색 과정 중 친구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늘 남의 탓으로만 돌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L군이 자신도 다른 아이들을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음을 조금은 인식하게 되었다.



[그림 2] 자기모습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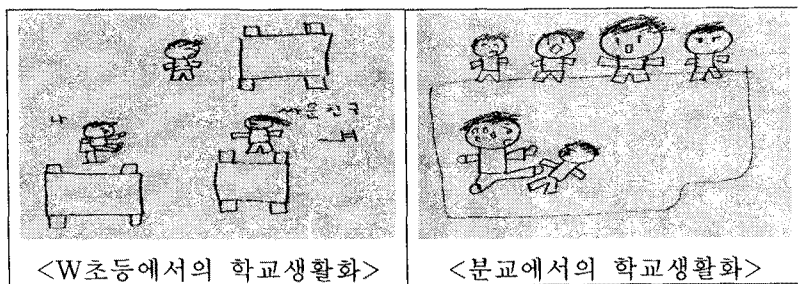
만들기를 할 때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인지 자아존중감이 부족했으며, 근래 2년 동안은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으며,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 보다는 함께 사는 조부모를 더 의지하고 있었다.

라. 제 4회기: 나의 학교생활

학교생활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예전에 다니던 W초등학교와 분교의 학교생활화(KSD)를 그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서의 걱정이나 공포, 분노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목록 없애기 활동을 하였다.

W초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화로 친구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분교생활화로 는 씨름을 하며 상급생이 하급생을 발로 밟고 있고 자신은 용원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렸다.

학교생활화를 통해 지금까지 W초등학교에서 재미있었으며 친구들과 잘 지냈다고 말 하던 L군이 아이들과 자주 싸웠음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상담이 끝날 무렵 자신이 싸우면 말다툼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모습이 변한다는 이 야기를 하며 상담자에게 어렵지만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그림 3] 학교생활 그리기

친구관계나 학교생활에서의 걱정이나 공포, 분노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주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데서 오는 외로움과 자신감 부족에서 오는 피해의식이었으며, L군이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록 없애기 활동 후에는 훨씬 기분이 좋아졌다고 밝은 얼굴로 상담을 마무리 하였다.

마. 제 5회기: 친구가 된다는 건

이번 회기는 화가 났을 때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자신의 행동이 비합리적임을 인식하게 한 뒤, '나-전달법'으로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화가 났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화가 났을 때 L군이 보이는 다른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뛰쳐나가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물어도 말 안하고 고집 부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자신을 이해시킬 수 없으며, 결국 다른 사람이 자기를 기분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화를 내는 방법의 대처 방안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할 때 필요한 나-전달법을 소개하고 친구들에게 속상하고 말하고 싶은 여러 상황을 쪽지에 적게 한 뒤 나-전달법을 이용하여 말해보도록 하였다.

바. 제 6회기: 주장하기

늘 자기주장을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는 화를 내는 L군에게 적극적인 주장행동을 해보게 함으로써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자 시도되었다.

학예발표회에 오시지 않은 부모님의 무관심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눈물을 보였고, 그 때문에 상담에 비협조적이어서 더 이상 상담을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몇 시간의 휴식 후 스스로 마음을 진정시킨 뒤 다시 상담자를 찾아온 L군은 본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은 이유는 아이들과 또 잘 못 지내고 W초등학교처럼 싸우게 될까봐 긴장이 되어서 라고 말하며 교우관계에 있어 불안한 마음을 비추었다.

교우관계에서 자기 생각을 전달해야 하는 다양한 경우를 상상하여 '자기주장' 연습을 하였는데, 무척 재미있어하였으며 앞으로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 하였다.

회기가 마칠 때 쯤 학예발표회에 오시지 않은 부모님에게 "엄마! 어제는 왜 못 왔어? 엄마에게 멋진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나는 엄마가 안와서 많이 속상하고 재미가 없었어. 다음에는 꼭 와 줘."라고 서운한 감정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고, 말하고 나니 바빠서 오지 못한 부모님 마음이 조금 이해되고 기분이 풀린다고 하였다. L군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편견과 함께 부모님의 무관심이 L군을 더욱 힘들게 함을 알 수 있었다.

사. 제 7회기: 분노감정 다루기

이 회기는 L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을 다루었다. 화가 났을 때 자신이 보이는 행동을 알아보고 그로 인해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짚어보고자 시도되었다. 분노를 다루는 단계의 학습을 통해 분노 감정이 일어날 때 대안을 찾고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분노가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L군의 저항으로 인해 2번에 걸쳐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전 학교에서 분노를 표출했던 방법이 비합리적이었음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다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은 덜 되어있음을 최근 상황에 대한 L군의 저항을 보아 느낄 수 있었다.

힘들었던 1차 상담 후 며칠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져서인지 2차 상담에서는 L군이 훌쩍 자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분노 표출 방법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롭게 화를 내는 방법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행동계약서에 적었던 자신과의 약속을 1주일간 잘 지킨 보상으로 L군이 좋아하는 비행기 조립 재료를 선물했더니 펄 듯이 기뻐하였다.

아. 제 8회기: '미안하다' 말하기

방학이라 조용한 낮 시간을 선택해 상담자의 집에서 상담도 하고 뒤떨어진 수학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다른 아이들과 부딪힐 일이 없어서인지 L군은 많이 안정되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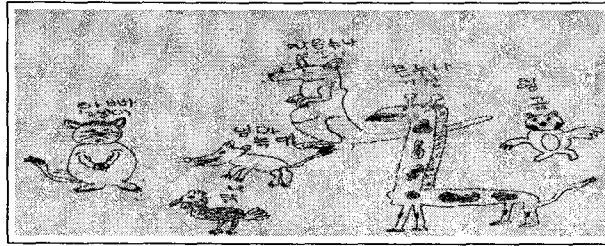
이 회기는 이제 서서히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인정하는 L군이 자신의 거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 보게 함으로써 앞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누군가를 귀찮게 하거나 거친 행동으로 피해를 주었던 경우를 생각해보게 하였다. W 초등학교에서 여자 친구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던 것과 자기보다 소심한 아이를 약 올려 화나게 했던 것, 섬에서 동생들을 때렸던 것을 떠올렸다. 자신도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경우를 생각해 보게 하여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한 뒤 사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과라는 것은 내가 했던 행동이 최선을 다한 행동이 아니었을 때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사과하기 전에는 누구나 불편한 마음을 느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자. 제 9회기: 행복한 우리 집

방학을 맞아 평소에 함께 지내지 못하던 가족과 함께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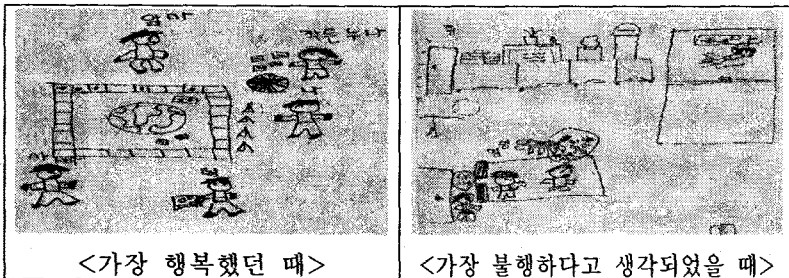
본 회기는 가족간의 역동 탐색을 통해 L군의 가족에 대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으로 전환시키고, 아울러 형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시키며, 무관심한 L군의 부모님으로부터 L군이 심리적으로 독립함으로써 좀 더 성숙된 모습을 갖추게 하고자 시도되었으며, 2번에 걸쳐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먼저 가족동물화를 그려보았다.



[그림 4] 가족동물화 그리기

아빠는 늘 집에 오면 잠을 자고 조심스럽고 조용하기 때문에 고양이로, 엄마는 화나면 무섭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늑대로, 큰누나는 기린, 작은 누나는 캥거루, 형은 싸움을 잘하고 무섭기 때문에 곰으로, 자신은 같이 살면서도 형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닭으로 표현을 하였다. 엄마와 형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적 가족화를 완성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림 5] 동적 가족화 그리기

가족끼리 가장 행복했던 때는 딱 한번 가족들이 모여 블루마블 게임을 했던 것이고, 가장 싫었을 때는 엄마와 아빠가 싸웠을 때인데, 엄마와 아빠가 자주 돈 때문에 싸우

시는데 그 때가 제일 싫다고 하였다.

가족 중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형이며 생각하기도 싫다고 해서 첫 번째 시간이 마칠 때 과제로 형의 좋은 점, 형과 즐거웠던 적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오기를 숙제로 내어 주었다. 의외로 많은 것을 적어왔고, 형이 때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잘해 준 적이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가족 중 엄마와 형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였는데, 엄마에게는 아빠와 싸우지 말고 오래사시기를 부탁하는 내용을, 형에게는 자신과 좀 잘 놀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자신도 고집부리지 않고 형에게 잘해 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었다.

방학 전 가족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기를 꺼리던 태도와는 달리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되어서인지 가족과 집에 대해 우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가족처럼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가족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었다. 나이에 비해 가족이 처한 경제적으로 힘든 현실을 보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바라고 늘 서운해 하지만 하는 L군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어야겠으며, L군의 부모님에게도 바쁜 틈틈이 L군에게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할 필요를 느꼈다.

차. 제 10회기: 책임감 기르기

본 회기는 자신과 타인, 학교와 관련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알아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것을 다짐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자신과 타인, 학교로 나누어 책임 카드를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약한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소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학교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별로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책임성은 계획 세우기, 인내하기,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며 회기를 마무리 하였다.

카. 제 11회기: 어머니와의 상담 2

상담자의 집에서 L군의 어머니와의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L군의 상담 경과도 말씀드리고 L군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도 할 겸 며칠 전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뵙고 싶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L군을 데려다 주시면서 아빠와 함께 상담자의 집을 방문하신 것이다.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L군의 어머니가 상담자를 대하는 말투와 태도는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상담을 시작한 이후로 조금 변하기 시작한 L군의 모습에 희망을 가지신 듯 보였고, 방학 이후 L군을 시의 외곽에 위치한 L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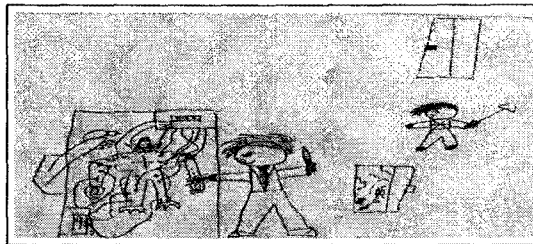
집에서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고 부족한 공부를 한 뒤 다시 데려다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상담자에게 무척 고마워하고 있었다.

첫 만남에서는 W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고 잘 지냈지만 부모님이 바빠서 섬으로 전학을 보냈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L군이 W초등학교에서 보였던 부적응적 행동을 인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하였다. 진과 달리 솔직해진 부모님의 모습은 상담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

타. 제 12회기: 미래의 나는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자아상을 상상하여 그려보도록 하고,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자아상을 위해 내가 변화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 해 봄으로써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미래의 자신을 사람들이 부적거리지 않는 한적한 곳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발명가로 아주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발명가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책을 많이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만든 발명품을 보고 싶고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라 다짐하였다.



[그림 6] 미래의 나 그리기

파. 제 13회기: 마음 여미기

마지막 회기로 그 동안의 상담과정에 대한 느낌을 주고받으며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안 것과 새로운 결심과 각오에 대해 자신에게 편지를 써 보고 상담을 종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그 동안 상담을 하며 가장 힘들었을 때는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될 때와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하였으며, 가장 기분 좋았던 때는 '목록 없애기' 활동이었는데 이 활동으로 속이 시원해졌다고 답하였다. 새로운 각오를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편지를 써

보도록 하였더니 ‘나는 상담을 할 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점점 하다보니 마음이 개운해지고 기분도 좋아졌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썼고, 자신에게는 ‘이제부터 친구들에게 양보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내가 될 것이다.’라고 썼다.

자기표현에 미숙한 L군이 마지막 상담에서 상담자의 의견도 물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6학년 때도 선생님 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며 상담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여 상담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IV. 상담결과 분석

1. 지능검사(K-WISC-III)에 나타난 상담의 성과

상담을 시작하기 전 L군의 전체 지능지수는 82로 평균이하 범위(low average range)에 해당하나 상담을 종료한 직후는 92로 평균범위(average range)로 향상되었다. 특히 상담 전에 비해 상담 후의 동작성 지능이 85에서 97로 12점 증가하였고 또한 지각조직과 주의집중 지표점수가 각각 10점, 14점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지적 기능의 향상은 L군에게서 지적된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의 증상이 호전되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2. 종합적 성격검사(KPRC)에 나타난 상담의 성과

상담 전후에 KPRC의 아동보고, 부모평정 및 교사평정을 실시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3가지 평정용 모두에서 상점 전에 비해 상담 후와 8주 후에 전반적으로 프로파일의 상승정도가 감소하고 기울기가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RS척도를 제외한 다른 KPRC의 척도는 아동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척도 전반의 상승도가 낮아지고 기울기가 완만해졌다는 것은 아동이 보고하거나 나타낸 문제행동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반적 변화를 3가지 보고형 별로 분리해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아동 보고형에서 상담 전에는 VDL, PDL, SOC, FAM, DLQ 척도점수가 중정도 이상 상승되었으나 상담 후와 8주 후에는 VDL척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상척도점수가 평균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아동 자신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가족과 관련된 주관적 불편감이 크게 낮아지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비행과 관련된 특성이 크게 변화되었으나 언어발달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각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2) 부모평정에서도 상담 전에 비해 상담 후는 전체적으

로 프로파일이 안정되어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상담 전에는 DEP, HPR, AUT, SOC 척도의 T점수가 임상적 관점이나 초점이 되는 범위였으나, 상담을 종료한 후에는 모두 정상범위로 저하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SOC척도의 T점수는 상담 전 59에서 상담 후 39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담 후 L군이 또래관계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호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교사평정에서도 10개 임상척도의 점수가 상담 전에 비해 모두 낮아져서 상담 후 학교에서 보이는 L군의 외현적 문제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VDL척도와 FAM척도가 약간 상승되어 있는데, 이는 지적발달이 늦은 L군의 특성과 학교에 비협조적인 L군 부모의 특성이 다소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KPRC 아동 보고형, 부모평정, 교사평정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L군이 나타난 대인관계적, 가족관계적, 비행 증상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관계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불안과 위축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현실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가족 내 긴장이 완화되고 갈등이 해소되어 바람직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며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던 L군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한다.

3. 문장완성검사에 나타난 상담의 성과

상담 후 문장완성검사 반응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상담 전에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공부였는데, 상담 후에는 자신이 어렸다면 공부를 좀 더 할 것이고 자신은 현재 공부를 좀 한다고 반응함으로써 학습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살린 구체적인 미래상이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물로 변한다면 힘이 좋은 사자나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고 싶다고 보고한 것은 소극적이고 위축된 태도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를 알고 좋아한다.’, ‘외딴 곳에 살게 되면 친구와 살고 싶다’는 대답으로 보아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에 대한 보고는 연구 전과 달리 부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넣어 질문에 답하였으며, 가장 행복한 때는 가족과 놀이를 할 때로 대답한 것, 부모가 피곤할 것을 늘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고 가족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단일검사에 나타난 상담의 성과

<표 2> 단일검사에 나타난 상담의 성과

측정지표	실시 시기		
	상담전	상담후	8주후
교사평정용 Iowa사회적 능력척도	29	69	56
교사평정용 공격성 측정	17	6	9
교사평정용 또래관계 측정	14	21	19
아동용 가족관계척도	5	20	19
아동용 공격성 척도	31	5	10
아동용 교우관계 검사(PR)	19	44	46
아동 우울검사(CDI)	16	9	12

상담을 실시한 후 공격적 행동이 현저히 감소하고 또래관계가 증진되었으며 사회적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과 가족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지각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행동관찰 및 면담결과 분석을 통해 본 상담의 성과

가. 행동관찰에 나타난 변화

1) 대인관계 불안을 극복하고 또래 간 상호작용을 하게 된 L군

L군은 본교에서 열리는 종합학습일 수업에서 상담 전의 비협조적이고 무기력한 태도와 달리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하였다. 또래관계에 있어서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을 어느 정도는 벗고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며 또래와 어울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우리 학교는 <본교와 분교장간 협동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였고 오늘은 시범학교 발표가 있는 날이다. L군은 공개수업에서 전통악기 기능이 우수하여 모둠장 역할을 맡았다. 모듬장의 역할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모듬원들을 연습시키고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모듬 결과를 발표하기로 되어있었다. 많은 선생님들이 보고 계셔서 혹 긴장하지는 않을지, 모듬원들을 잘 통솔할지 수업하기 며칠 전부터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모듬 연습시간 L군은 모듬원이 연습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협의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모듬 발표시간에도 다소 긴장한 듯 보였으나 일어서서 큰소리로 모듬활동 내용을 또렷하게 발표하였다.

- 2004년 10월 26일 관찰일기-

2)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L군

L군은 분교에 있는 하급생에게 위협한 장난을 즐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던 예전의 무서운 형이 아니다. 동생들을 아끼고 보호해주며 최고학년으로서 책임감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 분교는 급식소가 따로 없어서 섬에 있는 유일한 식당인 횃집에서 급식을 한다. 횃집이고 보니 다른 학교의 급식소와는 달리 반찬이 짜고 맵다. 이런 반찬을 특히 먹어내지 못하는 아이가 필리핀 어머니를 가진 1학년 H이다.

오늘 급식 반찬은 특히 매운 것이 많았다. 급식소에 와서 앉자마자 L군은 '오늘은 우리 H가 먹을 것이 별로 없네.'하며 걱정하는 말을 시작으로 젓가락질이 서툰 H의 밥 위로 연신 제일 맵지 않은 생선구이의 뼈를 발라 집어 나르느라 바빴다. 다른 아이 같으면 자기 반찬은 스스로 집어 먹어야 한다고 그냥 두라고 선생님들이 말렸겠지만, 형으로서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그 날 급식에는 그 어떤 선생님도 말하지 않았다.

- 2005년 3월 10일 관찰일기-

L군은 비합리적으로 몇 시간 씩 고집을 부리던 예전의 모습과 달리 자신의 잘못을 수긍하고 사과할 줄 아는 아이로 변해 있었다.

급식을 맡고 있는 D의 어머니가 점심시간 L군을 오해하여 야단친 일이 발생했다. 나중에 L군이 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된 D의 어머니가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L군은 계속 얼굴이 굳어 있었다. 시무룩해 밥을 먹지 않는 L군에게 담임선생님께서 먹지 않으려면 나가라는 말씀을 하셨고 L군은 밥을 전혀 먹지 않은 채 학교로 가 버렸다. 그토록 잘 지내던 L군이 이것을 기회로 또 의기소침해지면 어떡하나 무척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채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 L군은 스스로 D의 어머니를 찾아와 '고집을 부려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였고, 자신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오히려 사과를 받게 된 D의 어머니는 미안하여 얼굴이 빨개졌다. 비록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남의 탓만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L군에게 스스로 사과를 한다는 것은 큰 변화를 뜻한다.

- 2005년 4월 12일 관찰일기-

3) 부모님의 관심 속에 행복해지는 L군

L군의 부모는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 학교와 교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상담자가 부탁한 대로 L군에게 작은 관심을 쏟기 위해 노력하였다. L군은 그런 부모님의 관심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또한 부모님의 힘든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분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시내에서 출퇴근을 하며 섬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L군의 외삼촌이 아이의 입학문제로 분교를 찾아와서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 연구자를 칭찬하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다. 외삼촌 말씀으로는 늘 불만스런 얼굴이던 L군이 상담이후에 얼굴이 많이 밝아졌고 진과 달리 외삼촌을 보면 공손히 인사를 할 줄 아는 아이로 변했으며, 가족들 모두가 L군과 함께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방학을 보낸 연구자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그토록 고마워하고 있다니 상담은 어른들의 시각도 변화시킨 것 같아 기뻐다.

- 2005년 2월 15일 관찰일기-

4) 자신감을 갖고 학습에 임하는 L군

L군은 누적된 학습부진으로 학습동기가 낮고 자신감 또한 부족하였으나 상담과정 중에 있었던 한자급수시험 등 여러 번의 성공 경험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더 높은 한자 급수시험과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L군은 수학 교과학습 부진이다. 지능도 높지 않은 L군이 여러 번의 전학을 하며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학습을 하지 못했고, 학습 동기 또한 부족하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한자급수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학예회에서 자신감을 회복했던 L군은 지난 2달 동안 연구자와 함께 열심히 수학 학력 향상에 힘을 쏟았었다. 그 결과 몇 년 동안 수학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던 L군이 드디어 부진을 구제 받았다.

- 2004년 12월 18일 관찰일기-

나. 주위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 본 변화

1) 분교 아동의 반응

하루 종일 L군과 함께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교의 3학년 아동이 L군에게 쓴 편지를 보면, 예전에는 다른 아동과 함께 L군의 행동을 비판하고 따돌리기도 했었으나 이제는 온화하고 따뜻하게 동생들을 돌보아주는 L군에게 고마워하고 있으며 친하게 지낼 것을 부탁하고 있다.

2) 분교 아동의 반응

분교 아동들과 면담한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도 L군을 다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아이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인 의견이 전 보다는 달라졌다고 하였다. 단체 속에서 위축되어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않던 L군이 여러 과정을 통해 서서히 아이들 앞에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었고 몇몇 친구들과 사귀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L군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비쳤다.

3) 담임교사의 소감문

우리 분교 세 분 선생님 중 한 분이 며 L군이 섬으로 전입한 이후 7월 연구자가 L군을 담임하기 전까지 3월부터 6월까지 4달 동안 L군을 담임했었고, 6학년이 된 지금 또 L군을 담임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써 주신 소감문의 일부입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L군은 조금씩 변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지원해주어서인지 우선 얼굴 표정이 몰라볼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위험한 장난을 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으며, 동생들을 배려하여 행동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L군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자급수시험과 학예회 등 L군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상담선생님의 노력으로 L군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본교에 가서 L군이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L군은 우리 분교의 가장 큰 형으로서 자기 할 일을 잘 해내는 든직한 아이입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학급당 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학급에서 하루 종일 L군과 함께하는 담임이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L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과 심리상태를 잘 알 수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기 쉽고, L군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세세하게 알고 상담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학습지도 때문에 때론 엄하게 야단을 쳐야 하는 담임의 역할과 L군의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하는 상담자의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L군이 얼마나 적응해내는지 상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L군에 대한 참여관찰 일기와 주위 인물들과의 면담을 통해 연구자는 L군이 그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었고, L군은 이런 연구자를 진정한 상담자로 믿고 따라주었기 때문이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큰 저항은 L군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었음을, 또 그 문제가 남아 아닌 자신에 의해 일어났음을 인정하는 데는 연구자와 L군 모두에게 힘든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것으로 인해 몇 번이나 상담이 중단된 일이 있었고, 연구자는 L군이 스스로 그 문제에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며, L군 스스로 다시 상담을 하고자 연구자를 찾아오면서 해결이 되었다. 몇 번의 이런 고비를 넘기며 상담은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고, L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더 이상 예전의 충동적인

모습 대신 사려 깊은 모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심한 또래갈등을 보인 L군이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지만 L군이 현재 처한 분교라는 상황 때문에 많은 또래관계 경험이 제공된 가운데 L군이 이전에 보인 또래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L군이 많은 또래들과 함께 할 중학교에 진학하기 이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앞으로 연구자에게 남아있는 과제이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분교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술부족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는 올해 담임을 맡은 입학 전 경험이 전혀 없는 분교의 1학년 5명에게 사회적 기술 습득을 통한 학교 적응을 주제로 현장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 결 론

첫째,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을 극복하고 또래 간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다. 상담 후와 8주 후 KPRC 프로파일에서 상담 전 상승되어 있던 SOC 척도의 점수가 평균 범위로 낮아져 있어 대인관계에서 L군이 느끼는 불편감이 해소된 것을 알 수 있으며, 문장완성검사의 결과에서도 무인도에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친구이고, 동물로 변한다면 힘이 좋은 사자나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고 싶다고 보고하여 대인관계에서 위축된 태도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분교에서 열리는 종합학습일 수업에서 예전의 비협조적이고 무기력한 태도와 달리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분교 아동들과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또래관계에서의 심리적 위축이 극복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충동적이고 돌발적이며 비합리적으로 고집을 부리던 예전의 모습과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며 분교의 아동들에게 형으로서 사려 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L군의 이런 변화는 분교 3학년 아동이 보낸 편지의 ‘오빠가 우리를 잘 지켜주는 듄직한 오빠로 변했어.’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며, 상담 전에 비해 안정된 전체 KPRC 프로파일과 현저하게 낮아진 교사용과 아동용 공격성 척도에 잘 반영되어 있다.

셋째, 가족과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는 현실과 부모의 무관심, 형에 대한 미움으로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담 후 L군은 가족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KPRC 아동 보고용의 FAM 척도가 정상 범위로 낮아진 점, 문장 완성검사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가족과 놀이를 할 때이고 부모님의 힘든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족과의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상담 전 L군은 주의집중력이 낮고 누적된 학습 부진으로 인해 학습동기가 낮고 자신감이 부족했으나, 상담 과정 중에 있었던 한자급수 시험과 학예발표회 등 여러 번의 성공경험으로 인해 학습 동기와 자신감이 높아졌다.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평균이하 범위에서 평균범위로 높아진 사실은 주의력 결핍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담 후에는 자신의 미래상을 '한적한 곳에 작업실을 마련한 발명가'로 그려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위영·윤점룡(1987). 정서장애아 교육. 서울: 성원사.
- 곽경련(2001). 사회적 기술향상 집단상담이 아동의 공감능력, 자기노출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석만(200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길병휘 외(2001).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김미영(2000). 아동의 인지적 대인관계 문제해결 기술 훈련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보경(1995). 아동기 행동장애. 서울: 도서출판 성원사.
- 김승태, 김지혜, 송동호, 이효경, 주영희, 홍창희, 황순택(1997). 한국아동인성검사(KPI-C)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지혜, 홍창희, 황순택, 조선미(인쇄중). 한국 아동 인성검사 개정판(KPI-C-R).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춘경 외(2004). 아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박진재(2001). 아동의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기술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손관식(1999). Think Aloud프로그램을 통한 자기통제훈련이 정인지체아의 충동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숙(1993). 대인문제 해결 훈련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길연, 이지연, 유영애 역(2002). 사회적 기술 향상프로그램. 서울: 시그마프레스.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신주혜(1999). 단짝친구관계와 학교생활 적응 : 초등학생 4학년과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양명희(1988). 주의산만 및 충동적 아동에 대한 인지적 자기 통제 훈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K-CBCL)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윤송자(2004).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한 어린이의 우울증 상담 사례.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소수희(2003). 인지적 대인관계 기술훈련이 아동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시용(2002). 아동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이춘자(2000). 사회적 기술훈련이 아동의 교우관계, 학급활동 및 사회적 추론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호선(2001).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희봉(1988). 참여관찰 방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지순연(2001). 사회적 기술훈련이 고립아동의 자기존중감 향상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심리학회(2003). 만남과 성장. 서울: 학지사.
- 허미화 역(1994). 질적 사례연구법. 서울: 양서원.
- 허승희 역(2001). 삶의 기술. 서울: 학지사.
- 홍상황, 황순택(2004). 한국아동인성검사 개정판의 아동보고형(KPI-C-R-CRF)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3(2), 483-501.
- 황혜자(1997). 정서장애 아동의 상담사례연구. 동아대학교 동아교육논총 제 23집, 47-62.

Abstract

Counseling Case Study of a Child with Peer Confliction due to Lack of Social Skills and Impulsiveness

Lee, In-Su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t seems common for students living at a small county and islands to experience psychological conflicts and be unaccustomed in the peer society because they are not familiar with peer interaction and social skills.

This is a case study of L (hereinafter called L) who was grown up in the sheltered school at a small county. L was psychologically disturbed because he couldn't get along well in the transferred school. It is the reason why he had lived in the sheltered school at a small county, so he had not enough exposure to interact with peer and social skills.

Sometimes he was obstinate irrationally and when he had trouble with friends, he threw something out or went out of school and tricked juniors dangerously.

The fact of disperse with families, parent's indifference, and hate of older brother made L to have ill feeling against family. He had low motivation and low self confident in learning because of short attention time and accumulated poor learning progress.

In this study, he was evaluated at various area, such as, intelligent, affective, personal and inter-personal, before counselling. To evaluated the effect of the counselling, K-WISC-III, KPRC, sentence filling test, social adaptation ability test, etc, were administered right after the counselling was over and 8 weeks later. For specific information gathering and analysing, observation diary and deepen counselling were accomplished by homeroom teacher, his mother, and his peers. To correct his problematic behaviors, 13 counseling sessions were accomplished for 6 months and those counselling sessions were recorded and analysed definitely.

Followings are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First, he was recovered from the anxiety of inter-personal interaction and he started

to interact with peers. The result of *SOC* scale score of KPRC profile was lower than before as much as average student after counseling and 8 weeks later. This reveals that the distress against interpersonal relation have settled. Especially, through the result of sentence filing test, he seemed to feel attachment to peers and be positive, active in the relation of peer. For instance, he was active in the open class lesson and interacted well with peers. It could be said that he overcame the psychological distress comparing with previous time.

Second, he could apologize to his peer and juniors for his fault. His attitude were well shown in the letter from an old friend at the sheltered school, average KPRC profiling score comparing with previous counseling time, and remarkable decrease of attack scale score of teacher and peer.

Third, his view toward family turn out positive. He recognized his situation that he lived apart from family and even worried about his parent's financial difficulty. Through solving the confliction with his older brother, he could acquire the feeling of family reunion.

Fourth, his learning motivation and self-confidence were increased. He confirmed his future positively and he might be judged more attentive because his intelligence index was higher than before as much as average student.

With the main goal of this study, verification for effectiveness of counseling, understanding and helping problematic students such as L who lives at a small county and island through investigation of their real situation and problems with the method of counseling and socio-cultural analysis is worthwhile.

Identification of ideal relationship with peer is related with positive self-conception, harmonic social adaptation and development of child. It is time to investigate easy adaptive in classroom and well-organised program to acquire general social skills for sheltered school students at a small county and islands